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태 5,5)

누가 온유한 사람인가요?

악에 화를 내지 않으며
폭력적인 감정에 사로
잡히지 않는 이에요.

그는 자신의 반응, 특히
분노와 화를 지배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요..

그러나 온유는 약점이나
두려움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온유는 악을 묵인하거나
악에 대해 침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반대로 온유는 우울과
복수의 감정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과 차분한 태도에
자리를 내어주는 **강인한
정신력**을 요구해요.

예수님께서서는 온유의 참된
복으로 **악을 선으로 이길 것을
제안하시고** 그 것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약속을
하세요.

“.. 그들은 땅을 차지 할 것이다”

땅의 약속에서 우리는 또
다른 고향을 보는데,
예수님께서 참 행복의 첫
번째와 마지막 부분에서
"하늘의 왕국"이라고
부르는 고향을,
하느님과의 **친교의 삶**,
결코 끝나지 않을 **충만한
삶**을 보아요.



온유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미 행복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무엇보다
관계를 바꾸면서, 이미
자신들 주변의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종종 폭력, 오만과 억압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그는
'반대의 표식'이 되고 정의,
이해, 관용, 감미로움, 다른
이를 존중을 드러내요.



centro.rpu@focolare.org

da un commento di Chiara Lubich
dalla Parola di vita di nov'05
Parola di Vita
movimento dei
focolari
adattamento Centro Internazionale Ragazzi per l'unità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

그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마태 5,5)

온유한 이들은 보다 정당하고
진실된 복음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하늘의 왕국을 유산으로 받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준비를 해요.

온유함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생활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할 지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보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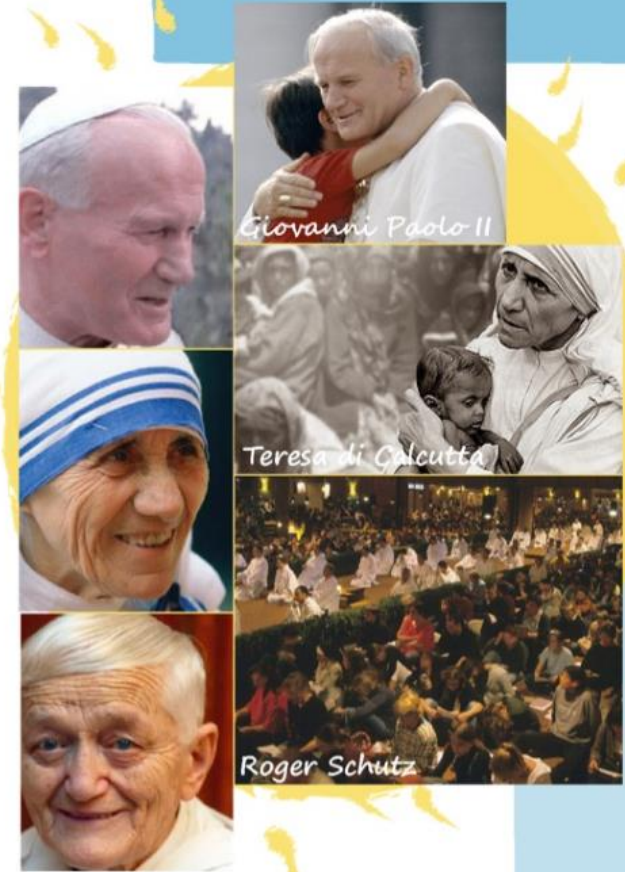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서
배워라”.
예수님의 학교에서
온유는 한 사랑의 질로
드러나요.

참 사랑,
성령께서 우리 마음 속에
넣어 주시는 것은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선, 충실
함, 온유, 자기 통제
«에요..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흥분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고, 모욕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신을
통제하고, 감미롭고
온유하며, 참을성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멋진
온유함을 사는 사람들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예요.

da un commento di Chiara Lubich
dalla Parola di vita di nov'05
Parola di Vita
movimento dei
focolari
adattamento Centro Internazionale Ragazzi per l'umilia



Giovanni Paolo II

Teresa di Calcutta

Roger Schutz

이 땅을 떠난 위대한
**요한 바오로 2세, 켈커타의
데레사, 로저저 슈츠**
같은 분들 안에서 우리는,
사회와 역사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 여정에 자극을 줄 만큼
온유함이 빛나는 것을 보았어요.